

MUJINE

Heritage

04

APRIL 2013

POWER JACKET
BLOOMING
SEASON

어떤 날, 이루마
5인의 거장에게 쓴 편지
JELLYLIPS



IWC

SCHAFFHAUSEN

art



장 로이에, 'Ours polaire'.



국제 갤러리의 장 로이에 전시 전경. 사진:김상태

찬란한 20세기 프랑스 디자인을 쌓아 올린 디자이너들 중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장 로이에다. 그가 담당한 포지션은 진보, 그의 자유로운 창조력과 우아함에 매료된 이들은 중동 지역의 왕들이다. 테헤란의 원로원 건물, 예루살렘의 엠베서더 호텔, 카이로의 세미라미스 호텔의 인테리어가 모두 그의 솜씨였다. 가구는 어떤가?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가 두툼한 벨벳 소재와 만난 북극곰 시리즈는 아름답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국제 갤러리.

만드는 것이 곧 살아가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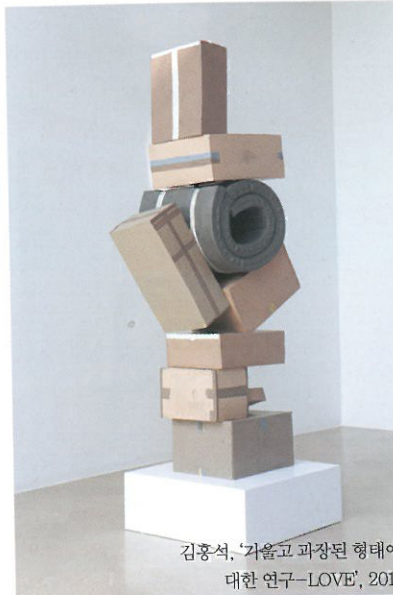
2년 전 여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그 해 3월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알리고 지역 부흥 및 재건 활동을 소개한 와와 프로젝트. 지난 3월, 그들이 다시 한 번 <도쿄전>을 열었다. 지진 대국에서 살아남을 되새기는 전시는, 한국전쟁 종전 직후인 1957년, 재건에 한창인 북한을 방문하고 그 모습을 담은 크리스 마커의 사진집 <북녘 사람들>과 교차됐다. 그 사진집 한 권이 1980년대 이후 한국 독자와 작가들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못할 수도 있는 것을 하려는 예술과 철학은 어떻게 삶의 정리정돈을 도울까?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4월 5일부터 열리는 <크리스 마커와 꼬레안들>은 시·영화·사진 등 다매체로 예술의 역할을 사유한 작업을 다사금 성찰한다.



Marker Chris 'Koreans - Untitled #7', 1957



black and white digital photograph mounted on black Sintra, 23.8 x 35.2 cm, From an edition of 3 © Courtesy Peter Blum Gallery, New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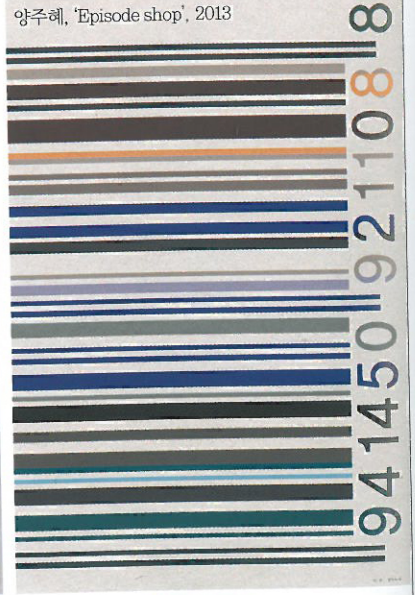


김홍석, '거울고 과장된 형태에 대한 연구-LOVE', 2011

이것은 아름답다

이건, 좀 '특별한' 미적 기준을 가진 세 국내 아티스트의 전시다. 김홍석 개인전 <좋은 노동 나쁜 미술>은 박스와 스티로폼 등 허술한 재료로 만든 작품인 듯 견고하거나, 만듦다 만 작품을 내놓는 등 시종일관 농담을 걸어오는 전시를 선보이고, 버려져 있는 물건에 색을 입힌 작품으로 유명한 양주혜는 이번엔 막대 조합의 기호, 바코드에 빠져 각종 사물에 바코드를 입혔다. 구조가 뒤죽박죽이 된 두상으로 그로테스크한 미학을 보이는 함진 작가는 스위스 제네바의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각각 3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삼성 미술관 플라토, 3월 7일부터 4월 2일까지 트렁크 갤러리, 3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아트&퍼블릭 갤러리.

양주혜, 'Episode shop', 2013



함진, 'Head II', 2013